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앗! 점프 실수" … 연아 1위 놓쳤다

그랑프리 파이널 쇼트 2위 … 오늘 프리서 역전 우승 도전

매력적인 표정연기 4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열린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한 피겨퀸 김연아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매력적인 표정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결과는 안도 미키에 이은 2위. /도쿄=연합

'피겨여왕' 김연아(19·고려대)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아쉽게 2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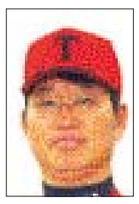
김연아는 4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열린 2009-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5.65점을 받아 일본의 안도 미키(66.20점)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트리플 플립 점프를 1회전으로 뛰는 실수가 우승을 놓친 결정적 요인이었다. 김연아의 이날 점수는 지난달 그랑프리 5차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세웠던 역대 최고점(76.28점)에 10.64점이나 모자라는 성적이다.

하지만 1위인 안도와의 점수차가 겨우 0.5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날 쇼트프로그램 배경음악인 영화 '007시리즈' 테마곡에 맞춰 매혹적인 눈빛과 함께 천천히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는 첫번째 점프과제인 트리플러츠-트리플토루프 콤비네이션을 성공시키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트리플 토루프에서 점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감점을 당했다.

이어 김연아는 트리플플립 점프 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너뛰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트리플플립 점프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 라인까지 대각선에서 직선으로 바꿨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김연아는 실수를 딛고 레이백스핀과 스파이럴시퀀스까지 무난하게 이어갔다. 한편, 이날 쇼트프로그램을 2위로 마친 김연아는 5일 오후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최종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연합뉴스

KIA 수석코치 황병일씨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사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KIA는 4일 수석코치에 황병일〈사진〉 타격코치를 임명하는 등 내년 시즌 1·2군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올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최경환이 1군 타격코치로 영입됐으며, 투수코치에는 이강철 코치가 유임됐다. 또 간베 도시오 코치가 건강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 빈 자리 상태인 투수코치에는 새로운 일본 지도자를 영입할 계획이다. 2군 총괄 코치에는 김대진 전 SK 코치를 임명했다. KIA는 2군 감독을 없애는 대신 2군 총괄 코치를 신설했다.

스카우트팀에서 코칭스태프로 옮긴 김정수는 2군 투수 코치로 임명됐다. 1군 작전코치에는 백인호가 맡게 됐다.

▲1군 = 황병일(수석) 최경환(타격) 김동재(수비) 이강철(투수) 장재중(배터리) 백인호(작전) 김태룡(전력분석) 김성현(체력 트레이너) ▲2군 = 김대진(총괄) 이건열(타격) 차영화(수비) 김정수(투수) 김지훈(배터리) 최태원(작전) 곽현희(체력 담당)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아공 월드컵 우승상금 357억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으로 357억원을 받는다.

4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승 상금 357억원을 포함해 총상금은 4억2천만달러(한화 4천834억원)로 확정됐다.

이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의 총상금 2억6천140만달러보다 60% 늘어난 금액이다.

우승팀 상금은 독일 월드컵 때의 2천450만 스위스프랑(당시 한화 193억9천만원)보다 160억원이나 상승한 3천100만달러(한화 356억8천만원)로 정해졌다.

본선 무대를 밟는 32개국은 출전 보상금으로 100만달러(한화 11억5천만원)를 우선 확보한다.

또 준우승팀은 2천400만달러, 4강 패배팀은 2천만달러, 8강 패배팀은 1천800만달러, 16강 진출팀은 900만달러, 1라운드(32강) 탈락팀은 800만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16강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본선 확보금 100만달러와 1라운드 탈락팀 상금 800만달러 등 총 900만달러(103억원)를 가져가는 셈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박장길·최영순씨 장남 진표(광주일보 사회1부 기자)군 안규근·오부심씨 삼녀 주희(광주지방보훈청)양=5일(토) 오전 11시40분 광주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조용진(광주시 기획관리실장)·김승매(화정남초교 교사)씨 장남 성우군 이호섭(살레시오고 전 행정실장)·범영희씨 장녀 지선양=5일(토) 낮 12시50분 광주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김동신(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관리국장)·오미옥씨 장남 형우(삼성SDS 정보기술연구원)군 윤상태(개인사업)·서영란씨 장녀 선영(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양=5일(토) 오후 1시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천만억·이정숙씨 사남 일석군 박선응씨 삼녀 송희양=5일(토) 오후 1시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컨벤션홀

▲이해구(전남도 공공보건담당)·김현숙(광주시 동구청 복지서비스담당)씨 장남 정우군 김정수·이춘자씨 장녀 윤아양=6일(일) 오후 1시 경기도 부천시 온누리 웨딩홀.

▲최석동(송원여고 행정실장)·유동순씨 장남 인영(국제종합기계)군 강의원(진흥고 교사)·유임수씨 장녀 유희양=5일(토) 낮 12시20분 광주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최명자씨 장남 한규승군 박기훈(광주시교육위원회 부의장)·조현희씨 장녀 수정양=5일(토) 낮 12시50분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2층(사파이어홀)

▲김종수(전 현대건설 상무)·이복희씨 장남 수현(삼성전자 인사과)군 이신백(형민오션리조트 대표)·강행자씨 장녀 수영(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팀장)양=27일(일) 낮 12시30분 더 청담 2층(노블레스홀), 피로연=5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록웨딩홀 4층 연회장.

▲최향옥씨 장남 이득선군 오용남(광주시청)·이군자씨 장녀 연미양=5일(토) 낮 12시30분 광주 상록웨딩홀 F층(장미홀)

▲박종혁(아름종합조경대표)·신숙이씨 장남 영한(수자원공사)군 김용율(자영업)·박건복씨 사녀 수연(수자원공사)양=5일(토)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이원용·최옥희씨 장남 성종군 고명희씨 장녀 원영희양=6일(일)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부음

▲신세풍씨 별세 남식(전 곡성부군수)·형식(밀알중앙회 부총재)·창식(전 제일은행지점장)·광식(체조협회 부회장)·명자(전 숙명여대 교수)·명숙씨 부친상 김경수(전 중앙대 교수)씨 빙부상=발인 6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